

# 다시 읽는

## 법화경 해설서 2권 나와

중생의 고통을 해소시키고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는 법화사상. 그 사상을 담고 있는 '법화삼부경'인 <무량외경>과 <묘법연화경>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은 모든 사람이 가장 빨리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준다.

독립된 이 세 경전은 한편으로는 법화사상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도 읽을 수 있다. 개경(開經)인 <무량외경>은 한량없이 다양한 가르침도 결국 한 가지 가르침, 즉 모든 현상의 본질은 '모양 없는 도리(無相)'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본경(本經)인 <묘법연화경>은 일승사상(一乘思想)과 본불사상(本佛思想) 등을 설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가 되게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다양한 비유설법이 펼쳐져 오늘날 많은 불자들이 독송하는 경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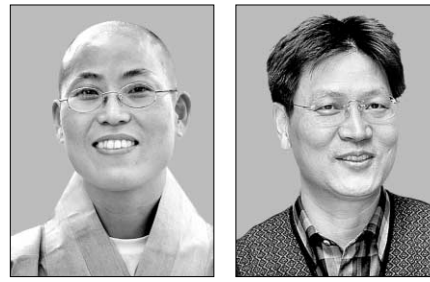
결경(結經)인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은 모든 업장이 망상으로 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보현보살을 관하는 수행법과 육근잡희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 경전 중 <법화경>에 대한 해석본은 국내에 많이 선보인 것과는 달리 <무량외경>과 <관보현경>의 해석본과 연구 성과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최근 출간된 <우리말 법화삼부경>과 <법화사상론>이 반가운 이유다.

해조 스님의 <우리말 법화삼부경>은 이 세 경전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역주를 달아 어려운 내용을 풀이한 책이다. 이 책은 사실 해조 스님의 스승 어머니로부터 번역이 시작됐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독경을 하였던 어머니는 <법화경>을 읽은 후 '이 훌륭한 가르침을 혼자 알고 있기 아깝다'는 생각에 번역과 사경에 매달렸다. 그 번역본의 감수를 해조 스님에게 부탁한 것이 1998년. 그러나 바쁜 일상 속에 조금씩 잊혀져가던 이 원고는 2001년 7월, 장마로 인



우리말 법화삼부경 해조 스님 옮김 | 운주사 | 2만5천원  
법화사상론 차차석 지음 | 운주사 | 1만5천원



<우리말 법화삼부경>을 펴낸 해조 스님(조계종 문화국장·원폭)과 <법화사상론>의 저자 차차석 박사.

한 산사태로 집이 무너져 생사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스님의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스님은 이후 '법화삼부경' 번역에 매달렸고 4년 만에 <우리말 법화삼부경>으로 세상에 선보이게 된 것이다.

"'법화삼부경' 번역은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린다는 의미 외에도 어떤 약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했던 병든 나에게 가장 좋은 약이 됐습니다. 번역을 마칠 무렵에는 그동안 나도 몰래 쌓여왔던 원망과 아만이 녹고, 몸도 많이 치유됐습니다. 이제 이 책을 통해 법화사상이 널리 세상에 알려져 모든 이들의 번뇌와 갈등이

# 법화 사상

해소되고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년간의 번역과 3년 동안 10년에 걸친 교정을 거친 만큼 문장이 간결하고 매끄럽다. 또한 '10번째 교정을 보는 순간 꽃잎이 마셨던 '제2방편품'의 한 대목이 확 트이더라'고 할 만큼 문장의 뜻을 정확히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한편 <우리말 법화삼부경>은 조만간 접자도서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불경 접자도서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던 스님은 조계종 문화부에서 받는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 접자도서 출간할 자금을 만들어뒀다고.

"진정한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법화삼부경'이 시각장애인들의 밝은 눈이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말 법화삼부경>이 경전의 뜻풀이에 주력했다면 <법화사상론>은 박사논문을 비롯해 오랫동안 <법화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가 그동안 발표한 <법화경> 관련 논문을 모아 엮은 것이다. 법화사상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에 비해 학술적 연구가 미미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그 존재감이 적지 않은 성과물이다.

"법화경이 말하는 성불은 매우 쉽습니다. 법화경을 들고 그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행의 완성과 불국토건설을 핵심사상으로 하는 <법화경>을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보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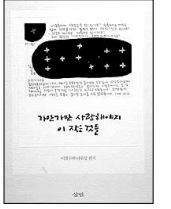
1부에서는 '법화경의 법사에 대한 고찰' '법화경의 역사·의식 탐구 시론' '법화경에 나타난 행함과 열반의 상관성 고찰' 등 <법화경> 자체에 대한 연구물들을, 2부에서는 <법화경>이 중국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전개되었는지를 사상사적 측면에서 살피고 있다.

지은이는 단순한 수지독송이 아닌, 현실에서 깨달음의 실천방법을 일러준다는 것이 <법화경>의 진정한 가치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py@buddhapia.com

## 새로나온 책

■ <가만가만 사랑해야지 작은 것들>(이철수 글/그림, 삼인, 9천8백원) = "소나무가 조심스럽게 낙엽을 떨어뜨려서 겨울 준비를 한다. 늘 푸른 소나무도, 묵은 것을 버리고 무성한 것을 달아서 푸르름 일색을 지극간다는 것을 안다." 판화가 이철수씨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 자신의 홈페이지(www.mokpan.com)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냈던 엽서를 책으로 묶었다. 작품을 위한 판화와는 달리 손으로 쓱쓱 그린 그림에 직접 쓴 글씨를 더해 친근함을 더했다. 손마디 굵은 촌로와 등대 국밥집 주인, 은행일 줄은 주정뱅이 친구, 새로 산 가방 등 일상의 소소한 에피소드 속에서 행복과 작은 깨달음을 찾아내는 글과 단아한 그림에서 선(禪)적인 시정과 삶의 긍정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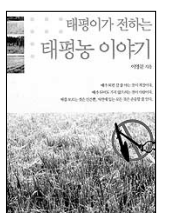


■ <아이스크림 명상록>(메슬리 레빈 지음, 최세민 옮김, 크립스, 9천8백원) = 아이스크림을 식사 대신 먹는다면? 지은이는 '디저트는 반드시 식사 한 후에 먹어야 한다'는 규칙을 깨뜨려서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고, 경직된 일상에 여유를 가져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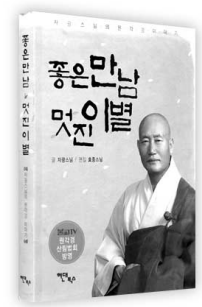


'우리 삶을 지배하는 작은 폭군'인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책에서 '체면 차리지 말고 마음껏 웃어 보기' '고요한 순간을 천천히 만끽하기' '남의 일에 관심 끄기' '자신의 장점 자연스럽게 내보이기' '질문을 깨고 자신의 의사 표현하기'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 <대평이가 전하는 대평농 이야기>(이영문 지음, 연화, 1만원) = 무농약 무비료 무경운(인위적)으로 땅을 갈지 않음으로 농사를 짓는 이영문씨의 농사이야기. 경남 사천 서포에서 3만6천여 평의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화해비료'가 수량을 높이고 수익이 증대시키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땅 속 미생물은 사라져갔다'며 '대평농법은 인간의 간섭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연이 스스로 일하게 함으로써 인간의 수고와 땅을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농법이다'고 말한다.



## 원각경 산림법회 책으로 엮어



좋은 만남 멋진 이별  
자광 스님 지음  
효종 스님 편지  
현대북스 | 1만원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는 복을 짓는 작복(作福)과 부처가 되는 작불(作佛)이 있습니다. <원각경>은 부처가 되는 작불 인연의 중요성을 설하고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각경>은 작복과 작불도 내가 있어야 짓는 것이므로 '나' 까지도 없애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경불교대학장 자광 스님이 불교TV에서 12회에 걸쳐 강의한 <원각경> 산림법회 '좋은 만남 멋진 이별'을 같은 제목의 책으로 엮었다.

<원각경>의 원제는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으로, 크고 바르고 광대한 내용을 가진 원각(圓覺)을 설명하는 경 중의 으뜸이 되는 경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문수·보현·보안·금강장 보살 등 12명의 보살이 던지는 질문과 부처님의 대답을 통해 대원각의 묘한 이치와 그것을 깨닫기 위한 수행법을 근기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스님은 "우리가 숨 쉬는 이 한 순간에 내 과거의 습이 녹아 있고, 현재 나의 행동은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며 "항상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이 책에 담겨 있다"고 말한다.

효종 스님(천통사 주지)이 자광 스님의 강의를 정리, 편집했고 부록으로 '불교 선택도'를 덧붙여 경의 이해를 돕는다.

여수령 기자

## 일반인을 위한 화두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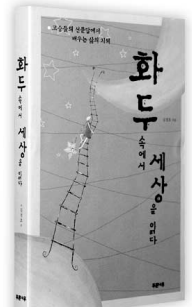
동산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추위와 더위가 다투어오니 어떻게 피하리까?" 동산 스님이 되물었다. "해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스님이 다시 물었다. "어디가 추위도 더위도 없는 곳이니까?" 동산 스님이 대답했다. "추울 때는 그대를 몹시 춥게 하고, 더울 때는 그대를 몹시 덥게 하느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흔히 쓰는 '화두'라는 말의 참뜻은 무엇일까? <화두 속에서 세상을 읽다>를 펴낸 김경호씨는 '화두란 선종의 조사들이 정한 깨달음의 문'이라고 정의한다. 부처님의 뒤를 이어 깨달음을 얻은 큰스승들의 깨달은 자리를 나타내는 법문 중의 법문인 화두를 깨치면 바로 부처의 경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은이 김경호씨는 "화두의 용도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뿐, 깨달음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강조한다. 오로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의심의 응결과 이를 타파함으로써 경성체합이라고 하는 수행의 한 방식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40여 가지의 화두를 제시하고 그 속에 담긴 뜻을 설명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화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화두의 참뜻을 읽다보면 화두가 '면 옛날'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지혜임을 알게 된다.

여수령 기자



화두 속에서 세상을 읽다  
김경호 지음  
푸른나무  
9천5백원

# 미래 사주학 핵심정리

명리학 용신분석 기초를 모아 핵심만 정리!  
알기쉽게 풀이한 교과서적인 한국 최초의 역학 지침서!

필자는 어느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주 속에 이것만 있으면 한평생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방법은 용신을 모르더라도 운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점(利點)이 있다.

- 이책의 특징
- 삼대(三代) 복신 개념 도입
- 주용신(제1용신)과 부용신(제2용신) 개념 설정
- 격(格)은 월령의 본기만 인정한다.

이선중 지음 / 사륙배판 / 484쪽 / 정가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만 편저/40,000원	그림 당사주 대전 4x6배판/이선암, 전호일 공저/25,000원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양정분/김성진 지음/30,000원	적천수 형의(上·下) 신국판/양정분/공유성 지음/40,000원
-----------------------------------	--	---------------------------------------	---------------------------------------

관음출판사 Tel. 921-8434 Fax. 929-3470 입금계좌: 390-04-150044 조흥은행 예금주(소광호)

### 단 하루 공부로 평생을 두고 보는 운명비결

누구나 오전에 이 책을 열면, 저녁 뉴스시간 이전에는 자신의 운명을 환하게 아는 도사가 된다.

누구라도 이 책을 보면 평생동안 자신의 매일매일과 평생의 운수와 운명을 숫자로 정확하게 미리 알 수 있다.

- 자신의 평생을 좌우하는 운명 숫자와 수명
- 자동차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집·사업 전후와 휴대전화의 번호 숫자와 사주팔자
- 부동산·점·명·가계·사업(장) 금액의 사주팔자
- 자동차 전회, 부동산과 인간의 공명 보는 법
- 대인관계(사업, 교제, 결혼, 취직)의 공명
- 인간 일대사를 평생도록 즉시 판단하는 법
- (사행, 간성, 혼인, 매매, 사업, 공전, 소송, 여행, 소원 운세)

해평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정분 / 416쪽 / 정가 12,900원

### 송월스님의 개정증보판 드디어 출간! 신사주학 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에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사

최근 이론을 급증!  
당신의 사주팔자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송월 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정분 / 817쪽 / 정가 50,000원

사주학의 목적은 년월일시 네 기둥을 정하여 인간의 타고난 운명을 규명해 보자는 것이 되며 역에서 이르기까지 역의 신비로 천지의 이치를 규명하고 조화롭게 하늘의 기밀을 누설하지 말고 신비롭게 기밀을 밝힐 수 있어야 하므로 경솔히 가르쳐 전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단집 수미단 전문 조성

천불전,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인등, 현판, 주련 등 전문 제작

## 누리 불교 예술원

박 연오 임장

TEL : 031)543-7073  
H·P : 011-703-9130  
FAX : 031)543-9162

www.nuribul.com